



[부속가] <성체송가>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취있네.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나뉘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나뉘는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어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제1독서] 신명 8,2-3.14ㄴ-16ㄱ

[화답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ㄴㄷ
 (© 12ㄱ)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Musical notation for the response: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The notation includes a treble clef, a key signature of one flat, and a 'Fine' marking at the end.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빔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2독서] 1코린 10,16-17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음] 요한 6,51-5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68] 오묘하온 성체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69] 사랑의 성사
[182] 신묘하온 이 영적
- 파견성가: [39] 하나되게 하소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묵상

우리의 삶 안에는 수많은 이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갓난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연인처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서로 생각하고, 먼 거리지만 그 현존을 생생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는 절대자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현존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느끼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얻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사도 17:28)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처럼, 그분도 우리를, 아니 우리보다 더 우리를 그리워하고 갈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분의 그 애타는 갈망이 결국 그분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성제 안에서 성체와 성혈의 모습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미사성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 안에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예수님의 현존을 바로 오늘의 내 삶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나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솔리아 크노프 글, 로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성체는 어떤 마음으로 영해야 할까?

성체성사는 미사 경본에 있는 여러 기도문과 성가로 진행된다. 성기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또한 성체성사 때 바치는 기도문은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길 청하는 것이다.

사제는 미사 경본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는데, 이 미사 전례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 준다. 이는 성체성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미사에서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봉헌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축성한다. 그런 다음 신자들에게 먼저 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 준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잠시 후 사제는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기도한 다음 다시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준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축성 기도로 함께 봉헌한 빵과 포도주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또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믿는다. 이 순간이 성체성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개를 깊이 숙여 존경을 표한다.

사제도 빵과 포도주를 각각 올렸다가 내릴 때마다 예를 갖추다. 복사는 이 때 종을 쳐서 모두 잊지 않고 예의를 갖추게끔 한다. 대축일 미사처럼 큰 미사 때에는 향을 피워 분위기가 한층 엄숙해진다. 예수님이 희생하여 몸과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으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예식이 끝나면 곧바로 ‘신앙의 신비여!’ 를 다 함께 바친다. 사제가 “신앙의 신비여.” 라고 하면, 신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응답한다.

미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이자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참된 ‘길’ 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신다는 그리스도교 교의이다. 하느님께서는 한 가지 본성만 있지만 그 본성 안에는 명확히 구분되는 세 위격, 곧 하느님과 아버지께 태어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성령이 계신다. 세 위격은 함께 동일하시고 함께 영원하시며 본질적으로 같으시다. 그러므로 삼위는 동일한 영광과 흠숭을 받으셔야 한다. 모든 삶은 삼위일체 안에서 시작되고 삼위일체로부터 나오며 삼위일체 안에 그 목적을 둔다.”

전례 사전에 나오는 삼위일체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강림 대축일로 지내고,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대축일로 기념하며, ‘천주존재, 강생구속, 상선별약’과 함께 천주교 4대 교리일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교리지만, 가장 어렵고 난해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대사전도 ‘삼위일체는 엄격한 의미에서 절대신비이며,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졌고, 계시된 이후에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간파될 수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교리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로 멀리해야 하는 교리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 다른 교리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의 시작과 마침에 성호경을 긁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또한 대부분의 마침기도를 할 때 영광송을 바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또 미사가 시작되면 사제는 성호경을 바친 후 기도합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될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듯 우리가 자주 바치는 기도의 공통점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들과 가까이 있는 삼위일체 교리이지만 아직도 편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신학서적이 아닌 소설책이기에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부 하느님을 생각하면 하얀 수염을 기른 인자한 인상의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성자 예수님하면 갈색 수염이 있는 잘생긴 청년을 떠올립니다. 또한 성령은 불꽃이나 비둘기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 성부 하느님을 파파라고 부르면서 체구가 큰 빛이 나는 흑인 여성으로, 성자 예수님을 키가 별로 크지 않은(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질 외모나 미남이 아닌) 유대인으로, 성령을 빛 가운데 아른거리는, 그래서 정확히 바라볼



네 자신의 상처로 스스로 지은 집

오두막 *The Shack*

윌리엄 폴 영 글

원제 *The Shack*

수 없는 중국 북부나 네팔, 몽골족 출신의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책 속 주인공도 “모두 셋이니 삼위일체 같은 존재들일까? 하지만 두 여자와 남자 중에 백인은 아무도 없다면? 그건 그렇고 그동안 왜 하느님을 당연히 백인이라고 생각해 왔을까?”라고 상념에 빠집니다.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아무런 고민이나 생각 없이 백인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세 위격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인공은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하느님 아버지가 대장이고 예수는 명령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령은 그 위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는 ... 아니 ... 그녀는 ...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당신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자냐는 문제죠. 당신들에겐 명령 계통의 사슬 같은 것이 없나요?” 이에 성령께서 대답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최종 권위자냐는 개념은 없고 통일성만 갖고 있어요. 우리는 관계의 원이지 명령 계통이나 당신 조상들이 말하던 ‘존재의 대사슬’ 같은 게 아니랍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어떤 힘도 겹치지 않은 관계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군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사이에 서열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죠. 사실 이건 당신들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일치 안에서의 선을 추구하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인데,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라는 등의 생각들은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알려줍니다. 흥미로운 소설 속 이야기로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책이 신학 서적이 아니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래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며 어렵다는 핑계로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분께 늘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라우든 구역



송 스테파노·사라 부부 댁에서 23가정 55명의 많은 식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백인현 주임 신부님은 구역 미사 중 강론에서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사 후에는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센터빌 구역 1반



10가정 20명의 구역 식구들이 윤상 리노·모니카 부부 댁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복음 말씀 나누기에 이어 5월 장터 한마당 결산 보고를 하며 내년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센터빌 구역 2반



11가정 18명의 구역 식구들이 6월 11일(일) 10시 미사 후 버크 레이크 공원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복음 묵상과 말씀 나누기를 마친 후 빙고 게임과 가곡을 함께 부르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센터빌 구역 3반



김용규 미카엘·김원선 베로니카 부부 댁에서 10가정 18명이 모여 "하느님의 외아들"에 관한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가졌습니다.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에 부딪혔을 때도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심을 깨닫고 마음을 비우며 살아갈 것. 또 살아 있다는 것 자체로 참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휘어팩스 3 구역 1,2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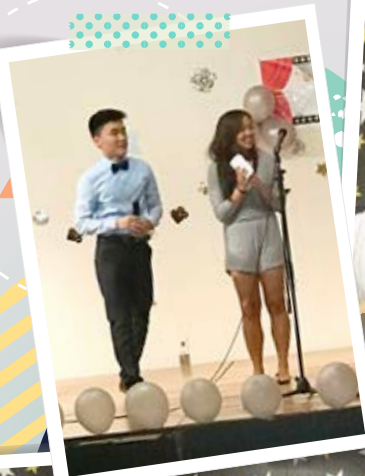
12가정 20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소공동체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CYO-News

Senior Banquet

This past Saturday, CYO hosted its annual Senior Banquet for the graduating class of 2017. It was a great night filled with performances, games, and videos/pictures of all the memories we made with the seniors.

It was a great way to end another wonderful year of CYO and there was no better way for the seniors to spend their time then with family and friends.



Congratulations to the Class of 2017!

Jiwon Kim, Marco Lee, Junhan Lee, Stella Yoo, Katie Kwak, Yulis Yoon, Win Kee, Hoon Lee, Peter Rhee, Kevin Swabb and Hyunsoo Im

Message to seniors



Seniors, congratulations on graduating high school! Thank you again for a great 4 years of CYO and all your time dedicated to make CYO fun. You guys were a big part of our CYO family so I wish you guys nothing but the best moving on to the next chapter of your lives. Good luck and always come back to church to say hi to your CYO family!

- CYO Assistant Principal, **Daniel Kim**(CYO)

ANNOUNCEMENT

- 1. CCD Outdoor Mass & Picnic**
 - When : June 25(Sun)
 - Where : Frying Pan Farm Park Visitor Center
 - Limited Spaces. First come, first served.
- 2. VIRTUS "Protecting God's Children" Training**
 - When : June 21 (Wed), 6pm
 - Where : Hasang Building (Room #110)
 - Language: Korean
- 3. Volunteer needed for the upcoming school year**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spc15.re.admyc@gmail.com.
- 4. Jr. High WorkCamp 2017 "Come and See"**
 - When : July 9 - 12
 - Registration open until June 18

꼬미시움 월례회의



본당의 대표적인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꼬미시움 (단장 김국 스테파노) 월례회의가 6월 11일 (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있었다. 48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영적지도 신부인 백인현 주임 신부는 “황금율”에 대해 설명하며, 상대방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총의 모후 꾸리아 단장으로 이경구 그레고리오 형제를 이어 이순임 헬레나 자매가 인준을 받고 신부님의 강복을 받았다. 사업 보고에 이어 피정(7월 29일)과 가두 선교 등을 논의했다.

꾸르실료, 친교실 및 하상관 탁자 청소 실시



평신도 사제직 꾸르실료 단체는 지난 11일 성당 친교실과 하상관의 탁자 청소를 실시하였다. 탁자 청소는 해마다 꾸르실료에서 맡아서 하는 연례행사 중의 하나인데 이번엔 여성 신입 꾸르실리스타도 함께 참여해 더욱 흐뭇한 행사가 되었다. 청소 후에는 뒷마당에서 간단히 바비큐를 나누며 선후배간의 끈끈한 우애를 다졌다.

새 신자들과 예비신자들 성지 순례

74, 75차 새신자들과 76차 예비신자들이 지난 11일(일)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장엄한 미사를 드리며 실제로 들어보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성가대의 아름다운 성가 등을 들으며 벽찬 감동을 느꼈다. 또한 1시간 가량 진행된 성전 필그림을 통해 참석자들은 성당의 역사와 배경 등을 알게 되어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순례는 본당에서 대형 버스와 점심 식사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다.



제75차 장혜선 자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벅차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신앙생활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를 위해 함께 해주신 분들, 이른 아침부터 맛난 김밥을 만들어 주신 분들 등등,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져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부 김진일 토마스 형제

삼위일체 대축일에 Shrine 성당 미사에 참례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천사들의 노래로 착각했던 성가대의 아름다움은 자주 접할 수 없는 천상의 그것이었습니다. 제74차, 제75차 그리고, 제76차 예비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봉헌했던 미사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효도 한마당 행사 ***

- 일시: 6월 18일(일) 오전 11:40, 친교실
- 어른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들 (안나회, 하상회, 65세 이상)을 위해 '효도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성당에서 노인 아파트로 가는 버스 시간은 오후 2:30 이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사단 모임

- 일시: 6월 18일(일) 12:40 성당 부엌 뒤
- 학생 미사 중에 졸업하는 복사들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습니다.

2 요한회(50대 교우) 정기야유회

- 일시: 6월 18일(일) 오후 12시
- 장소: Bull Run Park Shelter #12 (친교, 체육행사)
- 문의: 배석범 알베르도 (703) 477-3491

3 성인 견진교리 및 견진예식 일정

- 견진 교리 : 6월 20(화), 21(수), 22(목), 23(금) 오후 8시 (성인 견진 신청자 필수 교육입니다.)
- 교리실 장소 : 하상관106호
- 견진성사 예식 : 6월 25일(일) 오후 2시
- 장소 : Cathedral of St. Thomas More(알링턴 주교좌 성당)
- 문의 : 김우기 교육부장(703) 395-1305

4 유아세례

- 일시: 6월 25일(일) 오후 3시, 성당
- 신청: 6월 21일까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CCD 야외미사 및 소풍

- 일시: 6월 25일(일)
- 장소: Frying Pan Farm Park Visitor Center, Herndon
- 문의: 윤정보일 교감 (703) 371-3589

6 성정바로 성당 음악회(연합 성가대원 모집)

- 기존 성가대원 및 일반 신자들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습 시간 : 6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미사 후 연습
- 음악회 일시: 9월 23일(토) 저녁 미사 후
- 문의: 노혜란 (248) 494-6060

7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첫성성체 받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 신청: 7월 2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권용우 스테파노(571) 244-0333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8일(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Father's Day, 효도한마당(오전 11:40, 친교실), 복사단 모임 (오후 12:40), 요한회 정기 야유회(오후 12시, Bull Run Park)
19일(월)	연중 제11주간	아침미사(오전 6:00, 성당)
20일(화)	연중 제11주간	성령기도회(오후 8시, 도서실), 성인 견진 교리(오후 8시, 하상관 #110)
21일(수)	성 알로이시오 공자자 수도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인 견진 교리(오후 8시, 하상관 #110)
22일(목)	연중 제11주간	아침미사(오전 6:00, 성당), 성인 견진 교리(오후 8시, 하상관 #110)
23일(금)	예수 성심 대축일	성인 견진 철교(오후 8시, 하상관), 바로로회 자매 모임(오후 8시)
24일(토)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아침미사(오전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CYO Work Camp(6월 30일까지)
25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구리아 월례모임(오전 11:40, 하상관 #4), CCD, PTA 야외미사, K of C(오전 11:30, A-1,2), 성인견진식(오후 2시,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 비엔나 구역 공동체 모임(나눔터, 오후 6시)

8 구리아 월례회의

- 일시: 6월 25일(일) 오전 11:40(하상관 B-4,5)

9 울프레아 정기모임

- 일시: 6월 23일(금) 미사 후(A-1,2,3)
- 문의: 객노덕 도미니코(703) 608-9664

10 알링턴 교구 다문화 미사(주교님 집전)

- 일시: 6월 24일 오후 5시
- 장소: Queen of Apostles Catholic Church (4401 Sano St Alexandria, Va. 22312)
- 미사 후 공연 관람 및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교우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문의: 지경수 요한(571)331-6047

11 다민족 미사 성가대원 모집

- 알링턴 교구에서는 다민족 미사를 위해 교구 지휘자가 다민족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6월 24일(토) 오후 5시, Queen of Apostles Catholic Church
- 문의: 김마리나 (703)615-9910

12 하상 도서관 신간 서적 안내

- 8시,10시 미사 후 도서관리자 확인 후 대출 반납 가능
- 못참는 아이 육하는 부모(오은영), 1시간에 1권 권템 독서법 (김병안),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공지영),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기시미 이치로) 등 다수
-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11주간 : 탈출 34-40, 마태 26 -27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6월 22일 (목) 오후 5:00-6:00
- 6월 23일 (금) 오후 8:00-9:00
- 6월 25일 (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 뉴스
- 다큐멘터리 특집 / 사제(3) '그리스도의 향기' : 다양한 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양들을 인도해온 사제들. 그들이 보여준 주님의 향기는 어떤 것인가.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일반 : 국가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무기 거래를 종식시키는 데에 흔들림 없이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6월 11일 (삼위일체 대축일)

주일헌금	\$ 7,838.26
교무금	\$ 17,440.00
교무금(신용카드)	\$ 6,970.00
특별헌금	\$ 250.00
2차 헌금	\$ 0.00
합계	\$ 32,498.26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성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진(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동분(아가다), 김경호(사도요한), 오인균(바오로), 김영식(토마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벽진(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정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안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자(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월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마르코) 센터빌, 챌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마태오 홍 종합보험 메디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 옆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 703-801-3924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광고 접수중! 주보를 통해 교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세요~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요셉)